“골목부터 중기까지”…지역경제 성장 디딤돌 놓는다

〈중소기업〉

‘지역경제 혈관’ 광주은행

〈2〉자영업자·중소기업 버팀목

소상공인 419억 규모 특례보증대출
노동부 등과 중기 퇴직연금 융자지원
하반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

광주은행은 지역 골목을 지키는 소상공인과 지역 산업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동반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1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19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했다.

이와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과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회복 통합대환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민생회복 통합대환보증’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보유한 보증서 대출을 하나의 신규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 대출의 상환 일정과 조건을 각각 관리해야 했던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케이뱅크와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와 양 은행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전남·광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하반기 중 광주 광산구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공동 개소할 예정으로 해당 센터에서는 ▲민간·정책 서민금융 지원 ▲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상담 ▲채무조정 지원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해 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제도권 금융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역 밀착형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소액신용대출 상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 등을 통해 금융사각지대 해소와 자립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탠다.

광주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광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특별출연금 1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25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실질적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상품은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과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목포서 키운 AI 인재 전국 해커톤 국무총리상

스마트인재개발원 목포캠퍼스 ‘띠몬’팀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상

스마트인재개발원 목포캠퍼스 K-디지털 트레이닝(KDT) ‘언어지능기반 분석서비스 개발자 과정’의 ‘띠몬(TIMON)’팀이 최근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인재개발원 제공〉

스마트인재개발원은 13일 “최근 목포캠퍼스 K-디지털 트레이닝(KDT) ‘언어지능기반 분석서비스 개발자 과정’의 ‘띠몬(TIMON)’팀이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서로 다른 연령과 학력, 경력을 가진 훈련생들이 인구 20만명 규모의 목포에서 하나의 팀을 이뤄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전국 단위 해커톤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띠몬팀에는 해외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유학생부터 고교 졸업 후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 기존 직장을 떠나 직무전환에 도전한 중장년 훈련생까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과정을 통해 팀을 구성하고 핵심 프로젝트를 발전시켰다.

팀은 교육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에 주목한 뒤 현업자 멘토링과 프로젝트 고도화를 거쳐 ‘AI 에이전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산업현장의 안전점검 기록을 AI가 교차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서식을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 기록 관리부터 사고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목포에서 전국 해커톤 대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기반 디지털 인재 양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안태호 기자

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전남본부, 70여명 대상 컨설팅·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3일 “지난 10-11일 이틀간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 ‘농촌공간계획 시·군·구 관계자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촌공간계획의 정책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시·군·구 관계자의 원활한 계획수립과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시·군·구 농촌정책·계획 관련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남광주시 내 5개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 대상에 포함되는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신규 담당자를 비롯한 시·군·구 관계자들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현재 전남의 21개 시·군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계획을 마련해 시행계획이나 농촌특화지구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각 지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한전-ICT폴리텍대학 ‘맞손’ 실무형 전력 전문인력 양성

전력ICT 역량 강화 MOU 체결
현장 노하우·교육 인프라 융합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개발 추진

문일주(왼쪽) 한전 기술혁신본부장과 강도성 ICT폴리텍대학 학장이 최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ICT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국전력과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 특화 대학인 ICT폴리텍대학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ICT폴리텍대학과 ‘전력ICT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ICT 분야 역량강화 일환으로 정보통신 특화 전문 교육기관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 밀착형 인재를 육성하고, 전력통신 시공·감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부 감리원 대상 ‘전력통신 감리 전문과정’ 운영 시 한전 사내 전문가 강사 지원 ▲한전 ICT 직무 특성 반영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ICT폴리텍대학 재학생 대상 전력 ICT 특강 및 전력설비 현장 견학 ▲한전 임직원 대상 교육과정 수강료 할인 등 교육·인재양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전은 수십 년간 축적한 전력 ICT운영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접목하고, ICT폴리텍대학은 정보통신 분야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ICT폴리텍대학과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 ICT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핵심 기술역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서비스 제공과 국내 ICT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전력ICT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력 ICT 분야를 대표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